

목포시-신안군 '통합효과 분석' 연구용역 착수

통합효과 체감 상생과제 발굴 "광역 행정체계 구축 로드맵을"

목포시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신안군과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 전략과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박홍을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시의원, 군의원, 간부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추진방향, 연구방법, 연구절차 및 일정 설명 등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통합 연구 용역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양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군은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통합 전 실생활에서 곧바로 통합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연구해 통합으로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공동연구 용역 추진으로 통합의 상생과제,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해 목포·신안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로드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4개 읍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 전략과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목포시 제공

면 뿐아니라 작은 섬까지도 찾아가 우려 사항을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타지역 통합 사례분석과 지역민 인식조

사를 실시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비전과 아젠다 발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진도아리랑상품권 일시 사용 중단

진도군이 발행한 진도아리랑상품권이 12~15일 오전 9시까지 사용이 일시 중단된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구입과 환전이 불가하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접속이 불가해 충전, 결제, 환불, 가맹점 정산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

상품권 사용 일시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chak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것으로 전국 90개 지자체 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동시에 중단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16~18일 '섬 간재미·수국축제' 신안 도초도 수국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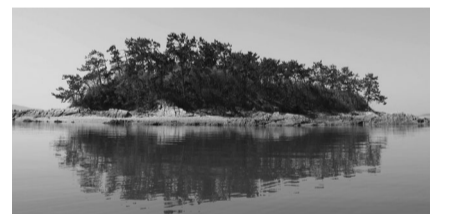
신안군은 도초도 바다 위 수국정원에서 섬 간재미축제를 섬 수국축제와 함께 오는 16~18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재미는 비금·도초권 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어종으로, 맛이 뛰어나 매년 도초도에서 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간재미축제는 간재미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축하공연, 간재미 냉두부면 나눔행사, 공연과 미식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미식공연, 수국꽃 길 걷기행사, 수국 회화전, 수국 사진 경연, 거리공연 등 문화와 전시·공연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1004만 송이 수국꽃과 함께 개최해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 소도 '6월의 무인도' 선정 한국섬진흥원



'패총의 섬' 무안 소도가 '6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됐다.

11일 한국섬진흥원(KIDI)에 따르면 '이달의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선정하고 있다.

무인도서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한국섬진흥원과 공동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한 소도는 '패총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소도 섬 중심부에는 패총이 1.5m 가량 두께로 하얗게 드러나 있는 데다 조개껍데기가 해안에 밀려와 수북하게 쌓여있어서다.

이러한 조개무덤 또는 조개더미라고도 하는 '패총'은 섬 지역 역사 그 자체이자 문화유산이다.

소도는 고도 10m, 길이 10m, 면적 5554㎡ 준보전무인도서다. '준보전무인도서'는 무인도서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뜻한다.

접근도 비교적 용이하다. 소도는 해식대지, 해식노치, 절리, 조간대가 발달해 간조 시 육지와 연결된다.

소도가 위치한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최초 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제1732호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군, 멧돼지 퇴치 활동 보은산 산책로 주변

강진군이 고성사 가는 길 등 휴식 공간인 보은산 일대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펼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멧돼지 퇴치 활동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강진군야생동물관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최근 저녁 시간대 산책로를 찾는 군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멧돼지 목격 신고가 늘고 지난해 9월 실시한 포획 활동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아 가을철 포획 활동 전 사냥개를 이용한 퇴치 활동을 갖기로 했다.

퇴치활동은 1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이며 사냥개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은산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민의 보은산 출입을 통제하는 등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문화원, 전통 두부만들기 체험 강진문화원이 지역문화재활용사업 '품생품사 강진향교' 사업을 통해 두부 만들기 체험과 시식회를 가졌다.

강진문화원이 지역문화재활용사업 '품생품사 강진향교' 사업을 통해 두부 만들기 체험과 시식회를 가졌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인구 5만명 달성 도전... 5개년 계획 수립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은 남도답사 1번지, 글로리 A 강진을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도출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탈출한

다는 계획이다.

군은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투트랙으로 지역소멸을 저지한다.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진 푸소 체험 운영 △푸케이션(푸소+위케이션) 운영 △병영 불금불과 축제 개최 등 관광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강진-광주 동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협력 사업 △지역상생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

젝트를 추진하며, 이밖에 △구 성화대학 활용 문화융합창업 플랫폼 구축 △사이버 주민제도 운영 △각종 지원센터(맘편한센터, 늘봄센터, 어울림센터) 운영 등 7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군수는 "주민등록 인구는 한계에 달해 생활권을 두고 오가는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의 해답"이라며 "강진은 푸소시즌 2를 통한 주거와 일자리 제공, 빈집 리모델링 정비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5만 명 달성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 자연 그대로' 준공식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완도 자연 그대로' 농특산물 안정적인 출하와 가공, 유통 체계를 갖춘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완도군은 완도를 축척리 농공단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지난 2021년 군특사업인 농촌자원 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축척리 농공단지 내에 건립됐다.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와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췄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 관리로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은 "완도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 7월10일까지 수국축제 연다

해남군은 현산면 4est(포레스트)수목원에서 7월10일까지 '2023 땅끝해남 수국축제'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4est수목원은 250여종, 9000 그루가 식재된 2만 6000㎡(8000평) 규모 수국군락지인 국내 최대 수국정원으로 여름철 대표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경연씨 부부가 7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1400종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조성돼 있다.

4est수목원은 숲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forest에 별(Star), 기암괴석(Stone), 이야기(Story), 배울거리(Study)라는 4개의 St를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사계절 꽃과 식물을 이용한 축제도 열리며 여름에는 숲길을 따라 수국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이 찬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소인 4000원이며 주말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방문하면 여유롭게 수국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4est수목원은 2021년, 2022년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안심관광지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3년 산림청 국립수목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2028년까지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